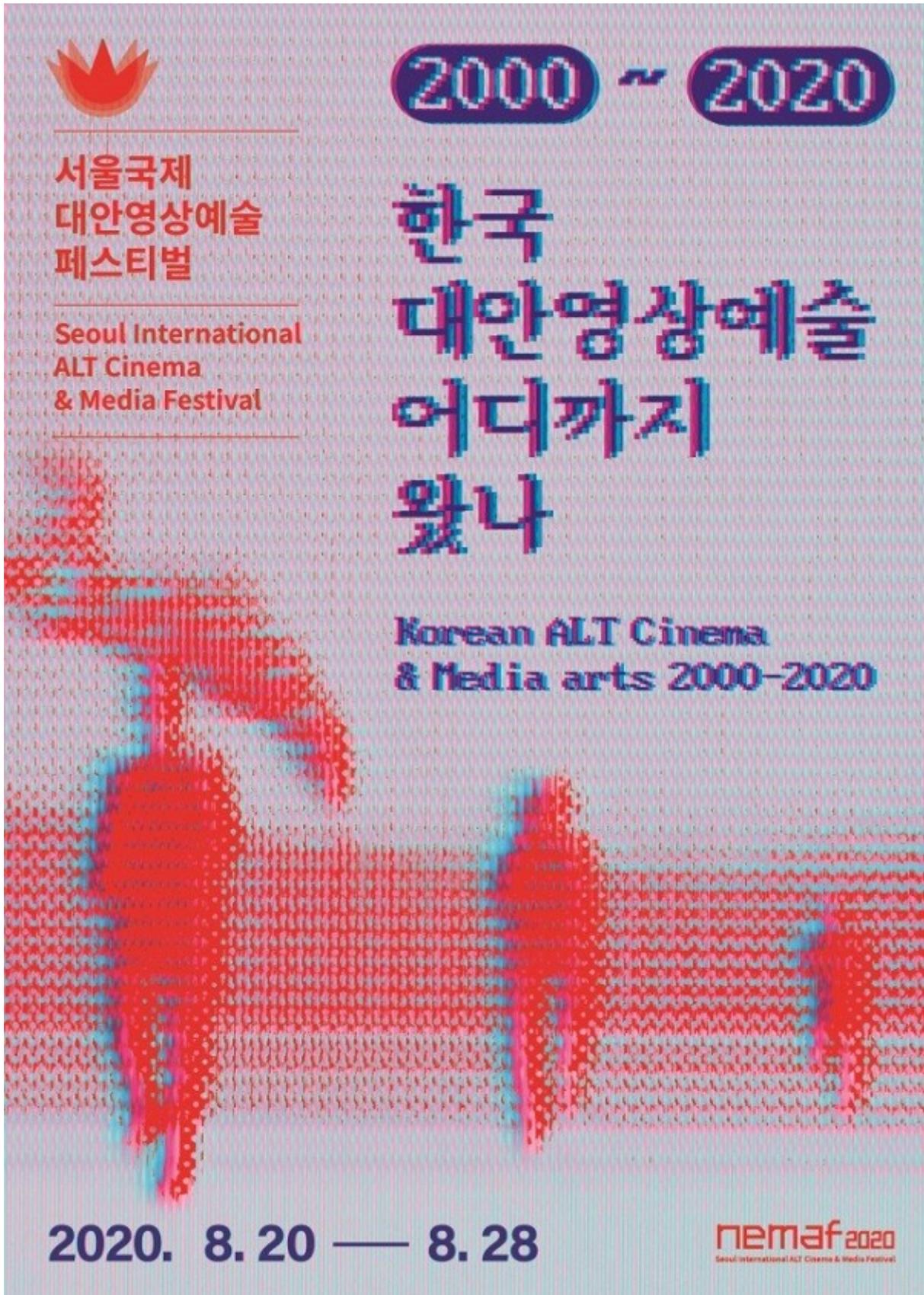


제20회 네마프, 8월 개막...공식 포스터 공개

김승진 기자 | 승인 2020.07.20 11:19



[시사매거진=김승진 기자] 국내 유일의 뉴미디어아트 대안영화축제인 서울국제대안영상 예술페스티벌(이하 네마프)이 올해로 20회째를 맞으며 달라진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영화제로 변모를 선언하고 공식 포스터와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오는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네마프의 올해 슬로건은 '한국 대안영상예술 어디까지 왔나'로 정해졌으며, 이에 맞춰 공식포스터도 제작됐다. 인권, 젠더, 예술 감수성을 기치로 내걸고 2000년 시작된 네마프는 20년 동안 국내 대안영상예술의 토대를 만들어오며 영화와 미디어아트 영상 전시를 아우르는 뉴미디어아트 영화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20회째를 맞아 대안영상예술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기 위해 올해의 포스터외 트레일러 작업은 네마프가 시작된 2000년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미디어아트 영상예술 활동을 펼쳐온 유비호(RYU Biho) 작가가 맡았다. 디지털 작업을 통해 아날로그적 감성을 표현하는 작품 활동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는 유작가는 이 외에도 아카이빙, 퍼포먼스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해 활동해오고 있으며 '성곡 내일의 작가상' 및 '글렌피딕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네마프2020의 포스터와 트레일러는 유비호 작가의 '검은 질주(2000)' 작품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작업하였다. 유비호 작가는 "2020년 인류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환의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이익과 편의, 탐욕 및 욕망과는 다른 방식의 협력과 공존이 이제는 필요하다. 나의 대표 작업 '검은 질주'를 통해 억압적이고 불안한 현재와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작가로서의 고심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은 디지털 영화, 실험영화, 비디오아트, 대안영상 등 뉴미디어아트 영상과 전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메가박스 홍대, 서울아트시네마, 미디어극장 아이공, 신촌문화발전소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일부 프로그램은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진행된다.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네마프)는 국내 유일의 영화, 전시를 함께 선보이는 뉴미디어아트 대안영상축제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다. 대안영상에 대한 젊은 영화감독, 신진 미디어아트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발굴해 상영, 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까지 2천여 편 이상의 국내외 작품을 발굴하고 약 1,000여명의 뉴미디어 대안영화와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대중들에게 작품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20회째를 맞아 빠르게 변화해가는 흐름에 맞춰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디지털 영상매체의 폭넓은 창작 작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환에 맞춰 선보이기 위해 새롭게 행사명을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승진 기자